**좋은 글과 좋지 않은 글 사례**

**좋은 글**

글쓰기의 능력은 타고난 재질이나 관심만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 정석으로 수용되고 있다. 먼저 경험과 지식의 폭을 넓히고, 개성적인 눈으로 사물을 관찰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예부터 전하는 작문의 수련방법으로 삼다(三多)가 있다. 다독, 다상량, 다작, 곧 많이 읽고 많이 생각하고 많이 쓰라는 것인데, 이것은 여전히 유효한 해법이기도 하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문학비평용어사전(글/글쓰기) 중 11문단

**-글의 목적에 맞게 쓰여 지고 있다.**

**본래의 목적인 글쓰기와 관련하여 글쓰기의 능력이 어떠한 형식으로 얻어지는지 방법을 알려주고 있다.**

**-외래어를 사용하지 않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예시를 들어 사용하고 있다.**

**다독, 다상량, 다작 이라는 예시를 통해 이해를 돕고 있다.**

**나쁜 글**

**5400억 네이버 데이터센터, 용인 퇴짜놓자 5곳이 "모시겠다"**

주민 반대로 무산되는 듯했던 네이버 제 2 데이터센터(이하 데이터센터) 건립 계획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데이터센터 유치 의사를 밝히면서다. 네이버 측은 23일 “당초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공세동에 지으려던 데이터센터 건립 계획을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며 “지자체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올해 안에 새 후보지 선정 작업을 매듭지으려 한다”고 밝혔다. 데이터센터가 거주지 인근에 위험ㆍ혐오시설의 설치를 꺼리는 ‘님비(NIMBY·Not In My Back Yard)’의 대상에서 반대로 설치 시 다양한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핌피(PIMFY·Please In My Front Yard)’의 대상으로 부활한 셈이다.

경기도 파주시와 전북 군산시 등 유치 의사 밝혀  
현재까지 데이터센터 유치 의사를 직·간접적으로 밝힌 지자체는 경기도 의정부시와 파주시, 경북 포항시와 전북 군산시, 인천광역시 등이다. 네이버가 본격적으로 나설 경우 데이터센터 유치를 원하는 지자체는 더 늘어날 수 있다.

네이버는 현재 강원도 춘천시에 ‘각’이란 이름의 데이터센터를 운영 중이다. 네이버는 2017년 6월 두 번째 데이터센터를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공세동에 구축하겠다고 밝혔었다. 당초 건립하려던 데이터센터의 규모는 부지 기준으로 13만2230㎡(약 4만평)로, 춘천 데이터센터의 2.5배에 달했다. 투자 금액은 5400억원에 이른다. 하지만 '전자파 영향' 등을 내세운 일부 시민들의 반발로 철회됐다.

참고로 네이버가 현재 운영 중인 ‘각’에는 총 12만 대의 서버가 자리한다. 서버의 저장 용량은 240페타바이트(PB)에 이른다. 이는 책 1000만 권을 소장한 국립중앙도서관이 약 2만5000개 있는 것과 같은 양이다. 제2 데이터센터의 저장 용량은 각의 6배 이상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출처 중앙일보 이수기기자2019.06.24-

**-글의 목적에 맞게 쓰여지는 듯 하나, 데이터센터가 들어왔을 때 갖게 되는 주민들의 장단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님비와 핌피, 전자파로만 설명하고 있다.**

**-쉬운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 않다.**

**님비, 핌피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들어가 있지 않다.**

**2020056780 김반석**